태풍에 멍든 제주, 재난지역 될까

도, 정부·국회에 건의 예정… 피해액 90억원 돼야 지정
피해규모 합산 불가·실제피해 반영 미흡에 부정 전망도

지난 8월 말부터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과 집중호우, 돌풍 등이 잇따라 발생해 농가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도 재난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번 태풍 피해가 워낙 커서 국회 국정감사때 제주에 오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할 예정"이라며 "(태풍 미탁) 집계가 마무리되면 정부에도 건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썬 이번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기준에 따르면 제주도는 자연재난 피해 규모가 90억원 이상이 됐을 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태풍 링링의 피해액은 11억원, 태풍 타파는 4억원(추정)으로 나타나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19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첫 사례다.

또 연달아 발생한 태풍의 합산도 불가능하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한 달 만에 태풍이 3개 연달아 통과해 직·간접 영향을 받았지만 피해규모는 개별로 집계된다.

게다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농작물은 피해 면적으로만 산정돼 폐작 등의 실제 피해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풍 링링의 경우 총 1만8917건의 피해접수 중 97%가 농작물(1만8381건·면적 4734ha)이며, 태풍 타파도 총 피해건수 2만1760건 중 농작물이 98%(2만1263건·6214ha)에 이르지만 주택 등 시설 피해가 적어 실제 피해규모보다 피해액은 체감적으로 적게 집계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요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태풍 복구는 자력복구가 원칙이며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휴경보상금 제도 등이 있어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6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침수·우박·돌풍 피해를 입은 당근과 더덕재배농가를 찾아 농민을 위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농민 아픔 위로… 추가로 도울일 찾을 것"

제주 찾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태풍 피해현장 방문 지원 약속
무이자·생활안정 자금 확대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가을장마와 세차례의 잇단 태풍, 돌풍·우박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광범위한 농작물 및 하우스시설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의 농업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6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세화리의 침수·우박·돌풍 피해 농가와 구좌농협유통센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의 돌풍 피해 현장 등 최근 자연재해로 농작물 및 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차례로 찾아 도내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 농가를 비롯해 김병원 회장, 고병기 농협중앙회 상무, 변대근 본부장, 지역 조합장 제주농협 및 제주도청 관계자 등이 동행하며 피해 상황과 함께 복구 지원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송당리의 당근 피해 농가를 찾은 김 회장은 "이번 자연재해는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을 누려야 할 농업인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겼다"며 "농협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농업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활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농가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제주도가 발빠르게 추진 중인 전국 유일의 '휴경보상 지원금'은 순발력 있는 정책으로 '신의 한수'라고 생각한다"며 "농협중앙회는 지역별로 시행 중인 무이자 자금 1000억원(지자체 70%·농협중앙회 15%·지역 농협 15%) 가운데 제주농협의 부담을 최대한 중앙회에서 맡아 그 해당 금액을 내년 농사를 짓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정해숙(60·여·구좌읍 송당리)씨는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는 물론 우박과 강풍에 의해 2만3100㎡(약 7000평) 규모의 당근과 더덕밭이 하루아침에 폐작이 됐고, 대체할 작목조차도 없다"며 "특히 폭우에 의한 농경지 유실로 내년 농사조차도 막막하다"고 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과 농협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변대근 제주농협 본부장은 "농가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무이자자금 추가 지원 확대, 피해농가 생활안정자금 농가당 500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 기존 대출금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시 금리 우대 적용, 대출금이자 1년간 납입유예 등 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시름 깊어진 농가… 도, 특별지원 나서

도, 예비비 투입 긴급 시행
휴경보상 모든 품목 확대 등

사상 유례없는 가을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잇따라 제주를 강타하면서 제주농가가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피해휴경보상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부터 시작한 태풍 3개와 집중호우, 돌풍 등의 영향으로 폐작이나 침수된 농경 피해 면적이 1만8813ha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 등의 피해가 종합된 수치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피해현황을 보면 태풍 '링링'에 따른 제주지역 피해건수는 총 1만8913건으로 이중 농작물이 1만8381건·4734ha에 이른다. 태풍 '타파'로 접수된 피해는 총 2만1760건으로, 농작물은 2만1263건(6214ha)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제주도 자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휴경보상 대상 품목을 월동무 등의 일부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는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농약대를 지원한다.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ha당 15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전파된 하우스 시설 등에 대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경우 예비비 3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구성해 지원에 나선다. 폐작 또는 전파된 농경지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 등과 협력해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제주도는 22일까지 자체 정밀 조사를 실시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

이소진기자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1000억원 피해

최근 10년간 제주에 호우·대설·강풍·풍랑 등의 자연재해로 1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복구비로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3조 62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복구액은 피해금액의 2.1배가 넘는 7조 7090억원이 넘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6577억원(18.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5709억원(15.7%), 경남 4913억원(13.5%)이 뒤를 이었다. 가장 피해가 적은 지역은 대구(8억 3600만원)였고, 세종 18억 3300만원, 대전 84억 4000만원이었다.

제주는 최근 10년간 총 1047억 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해원인별로는 피해금액은 호우 6억8000만원, 대설 106억 100만원, 강풍 47억원, 풍랑 2억 3000만원이었다. 피해복구비는 총 2044억8000만원으로, 재해원인별로는 태풍 1923억원, 호우 33억8800만원, 대설 62억5300만원, 강풍 20억 2100만원, 풍랑 4억8000만원이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625세대 입주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거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세대는 예비입주자를 포함해 제주시 288세대, 서귀포시 337세대 총 625세대다.

모집 공고문은 제주개발공사(www.jpdc.co.kr), 제주시청(www.jejusi.go.kr), 서귀포시청(www.seogwip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서귀포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이와 함께 기존주택 추가 매입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말까지 목표 물량인 200호 중 남은 37호를 매입할 계획인데, 매입 공고문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윤기자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S보험사
정비
안전성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증
국내최초 전세렌터카 | 원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오하라베니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